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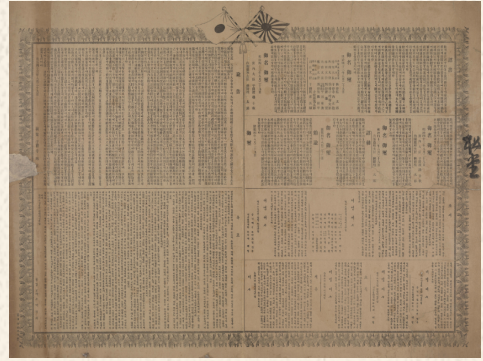
2026년 8월의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 목숨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자결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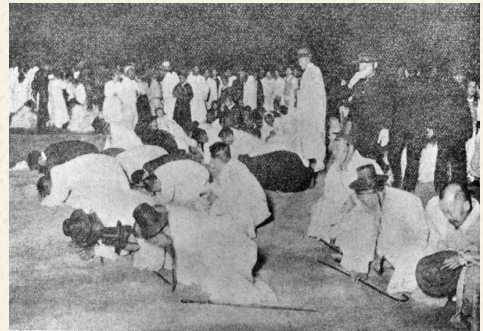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빼앗자 한국인의 항일운동은 더욱 격렬하고 더욱 다양해졌다. 그중에서도 자결은 무장투쟁에 비해 소극적 저항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일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에게는 독립의식 고취와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파급력과 의미가 결코 작지 않았다.

경술국치 전후에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자결순국의 길을 택하였다. 1910년에는 황현을 비롯한 29명이, 1911~ 1912년에 8명이 자결하는 등, 1910년대 64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1919년 고종의 사망에 분개하여 자결하거나, 병탄 후 부모의 만류로 자결하지 못하다가 부모의 3년 상을 치른 후에 자결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평소 생활하고 학문을 익히고 사람을 만나던 자택이나 향교와 같은 곳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였다. 1910년 11월 17일 충청남도 공주 출신의 오강표가 자결순국한 공주향교가 그러했고, 1910년 11월 27일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장태수의 생가이자 은거지로, 그가 단식 24일 끝에 순국한 남강정사가 그러했다. 이들의 마지막을 함께한 이 사적지들은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경술국치 공고문(1910)



경술국치 발표 직후 통곡하는 국민들



오강표
(1844~1910)



장태수
(1841 ~ 1910)

공주향교(충청남도 공주시 향교1길 26)는 오강표가 명륜당에 절명시를 지어 붙이고 통곡한 후에 강학루에서 목을 매어 자결순국한 곳이다. 공주향교는 선비들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이전과 보수, 중수 등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특히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중수를 거쳤기 때문에 당시 양식의 건축물이 현재 남아 있다. 오강표가 자결 강학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철거되었으며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동재, 서재, 외삼문, 강서재 등이 있다. 1978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공주향교 전경과 항공사진

오강표는 1844년 2월 9일((음) 1843년 12월 21일) 충청남도 공주군 사곡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관직에 나서지 않고 학문을 탐구했다. 20살이 되던 해 부친의 명으로 유학자 임헌회(任憲晦)의 문하에 들어갔으나, 임헌회의 권고로 그의 제자인 전우(田愚)에게 학문을 배웠다. 간재 전우는 전통적 성리학의 중흥만이 국권 회복의 길이라 여기며 학문 수양에 정진한 유학자였다. 오강표 역시 스승 전우의 학풍을 좇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도학적 전통을 고수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은둔생활을 하면서 제자를 양성했던 스승과 달리 의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실천하려는 지사의 삶을 살았다.

1905년 11월 일제의 강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격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귀 영화를 위해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세에 굴복한 을사오적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문 「청참조인 제적소(請斬調印諸賊疏)」를 작성하였다. 이 상소문을 충청남도 관찰사 이도재(李道宰)에게 조정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청국 상인에게 아편을 구입한 후 공주향교의 명륜당(明倫堂)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하고는 자결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10년 8월 공주의 명강산(明岡山, 현 무성산)에서 은거하며 생활하던 중 일본이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소식을 접한 뒤 절명사(絶命詞)를 짓고 자결을 결심하였다. 자결의지를 동학인 최종화(崔鍾和)에게 알리고 유서를 작성하였다. 「경고동포문(警告同胞文)」이라는 제목의 유서에는 일제의 국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일본의 노예로 굴복하면서 살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후 공주향교의 명륜당에 들어가 벽에 글을 붙이고 대성통곡을 한 후 11월 17일((음) 10월 16일) 밤 강학루 들보에 목을 매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의 정신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남강정사(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56-8)는 장태수의 생가이자 1910년 경술국치 때 단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1895년 8월 을미사변 이후 이곳으로 내려와 은거하다가 1904년 2월 러일전쟁 직후 복직하여 국망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10년 8월 경술국치를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은둔하다가 단식을 단행하여 순국하였다. 남강정사는 그의 부친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정면 4칸 측면 4칸으로 지은 초가집으로 지금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1983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남강정사 전경과 항공사진

장태수는 1841년 12월 24일 전라북도 김제군 금구면에서 출생하였다. 1861년 정기 과거시험인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였고 1869년 10월 양산군수에 임명되어 관직에 나갔다. 부국양병에 주력하고 녹봉으로 대포(砲)를 설치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이러한 공덕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는데 조선 문신 정3품 상계(上階)로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였다. 이후 병조참의·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동부승지·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춘추관수찬관(春秋官修撰官) 등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지만, 고향에 머물면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전라도 고산현감으로 임명되어 이를 진정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1895년 단발령이 시행되자 사직한 후, 스스로 남강거사(南岡居士)라 칭하며 은거하였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직후 일제가 한국 침략을 본격화하자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다시 관직으로 나갔다. 고종을 측근에서 모시는 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으로 임명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까지 직을 유지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적신(賊臣)들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 예로부터 많았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리며 을사오적의 처단을 상소하였다. 1910년 8월 이완용 매국 내각의 책동으로 경술국치의 비극을 당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개와 말까지도 능히 주인의 은덕을 생각하는데,
역적 신하들은 어찌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팔 수가 있는가
(犬馬猶能懷主德 賊臣何忍賣君欺)”

.....

그 뒤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은둔하였다.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 시기의 영향력 있는 유력자들에게 작위(爵位)와 은사금(恩賜金)을 수여하여 이들을 회유하고 식민지 지배의 안정을 꾀했다. 장태수에게도 일제 헌병이 찾아와 은사금 받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차마 볼 수 없는데, 하물며 원수의 돈을 어떻게 받겠는가. 나는 죽어도 받을 수 없다”며 호통을 치고 쫓아버렸다. 연일 일제 헌병이 찾아와 위협하며 은사금 받기를 강요하였지만 끝내 거부하고 아래와 같은 말과 함께 곡기를 끊고 의지를 굳건히 하였다.

.....

“내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없는 데도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니 하나의 불충(不忠)이요,
이름이 적의 호적에 오르게 되는 데도 몸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선조(先祖)를 욕되게 하였으니 또 하나의 불효(不孝)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같은 두 가지의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이 이미 늦었다”

.....

충(忠)과 효(孝)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선비가 이를 모두 잃었다는 자괴감과 일제에 대한 분노가 드러난다. 그는 조상의 묘에 죽음을 고하고 단식을 결행하였다. 그리고 24일 만인 1910년 11월 27일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정신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